

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特別市消防職制改編建議案

- 서울特別市는 우리 나라의 政治·經濟·社會·文化的 中樞的 機能이 集中된 도시이자 우리 나라 人口의 4분의 1이 넘는 1,100만 市民이 살고 있는 世界 속에서 4위에 이르는 巨大都市이며, 아시아·太平洋時代의 先進都市로서 國際競爭力을 確保하는 것이 急先務인데도 타 시·도와 같이 劃一的으로 關係法令과 制度로써 規制되고 있다.
- 서울시의 消防與件은 他 市·道에 비해 施設物이 대형화 또는 고층화되고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各種 火災發生 위험성이 높아지며 大型災難이 증가하고 있으며, 96년 11월 현재 消防出動 12,884회, 應急患者 移送 102,890건, 人命救助 활동 및 풍수해 등 災難復舊 支援 11,958회 출동하는 등 災難救助 活動을 展開하고 있어, 1일 平均 894대의 裝備와 3,263명의 人員動員, 527회 緊急出動하는 등 消防力이 가동되고 있음.
- 95년 7월 18일 制定公布된 災難管理法 및 同施行令에 災難現場指揮 “統制官”이 消防本部長으로 指定되어 있으며, 그 기능과 掌管事務는 緊急 救助救難活動의 指揮統制, 救助救難對策의 總括調整, 효율적 救難對策 樹立 등으로 規定되어, 軍·경찰 등 有關機關을 掌握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消防本部長의 職級(소방정감: 2급)이 餘他機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指揮體系 確立이 곤란하고,
- 서울特別市組織編制上 消防本部長은 餘他局長(2급)과 같은 職級으로 보하고 있는바, 建設安全管理本部, 地下鐵建設本部 등 各種

施設物을 관리하는 부서장의 職級에 비하여 消防本部長의 職級이 낮아 災難事故 現場에서 관련부서를 指揮統制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 地方警察廳과 비교하더라도 서울은 治安正監(1급), 부산은 治安監(2급)으로 보하고 있으나, 消防本部長은 서울과 부산이 同一하게 消防正監(2급)으로 보하고 있어 부서간 衡平性이 맞지 않음.

따라서 서울特別市議會에서는 各種 災難現場에서의 一絲不亂한 指揮體系確立과 消防業務의 效率的인 推進을 위하여 消防本部長인 消防指揮官에게 權限과 責任에 상응하는 직위인 消防總監(1급)의 職級을 賦與할 수 있도록 關聯法規의 改正을 건의한다.

1996. 12.

서울特別市議會議員 一同

전기승압미개선학교의승압에산에대한 한국전력의지원건의안

우리 나라는 1979년부터 220볼트의 전기사용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현재 서울시교육청 산하 12개 초등학교와 2개 중학교의 전압이 110볼트로서 그간 정부에서 추진하여 온 학습기자재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된 각종 교육기자재들이 220볼트 전용으로 교육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정보화 교육에 중요한 컴퓨터, V.T.R.등의 학교시설 등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못한 채 사장될 형편입니다.

또한 계절의 변화에 따른 냉·난방 시설의 가동에도 차질을 빚어 학생의 수업과 학사일정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코자 노력하고 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예산조달이 여의치 못해 해결이 어려운 가운데, 전력을 공급하는 한국전력공사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임에도 '95년도 당기순익 약 4,100억원을 시현하고 있는 등 막대한 이윤을 시현하고 있고, 국민들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주요 목표로 하는 공기업으로서 그 사회적 책무는 이윤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기업과는 다르고 또 달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p>이와 같은 측면에서 한국전력공사는 공공서비스에 기여하고 교육발전에 부응한다는 입장에서 실현된 이익의 일부를 교육부문에 투자하여 전기승압에 필요한 공사비 약 21억원의 지원을 건의하는 바입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96. 12 서울특별시회의의원 일동</p>	<p>등 당 위원회에서 1차와 2차 심의 및 3차 심의를 거치며 청원인의 의견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므로 사립유치원 교사에게도 담임수당을 지급하여 유치원 교사에 대한 민원을 해소시키고자 함.</p> <p>3. 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법(제114조) 및 동법시행령(제24조) ○ 사립학교법(제43조) ○ 유아교육진흥법(제4조) ○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p style="text-align: center;">사립유치원교사에대한담임수당지급 청원에대한의견서안</p> <p style="text-align: center;">제안일자 : '96.12.23 발 의 자 : 문화교육위원회</p>	<p>○ 副議長 李聲九 이상으로 제14회 定期會 제7차 本會議을 마치고 제8차 本會議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7時 27分 散會)</p>																																																																		
<p>1. 주문</p> <p>'96.7.12. 정한식(문화교육)의원의 소개로 문성옥 의 65명이 유아교육에 대한 100년 전통의 명맥을 유지해 온 사립유치원의 교사에 대하여, 공립유치원 교사의 경우와 같이 담임수당(월 30,000)을 지급해 달라는 청원이 당 의회에 제출된바,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집행부 및 청원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본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바 있으며, 예산을 지원하고 보조함에 있어서는 그 근거 법령이 있어야 함은 물론, 충분한 타당성을 가져야 하는바, 관련법규인 지방재정법(제14조) 및 동법시행령(제24조), 사립학교법(제4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제3조) 등 관련법규를 검토해 보면,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사립유치원이 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의 한 형태로 유아교육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교육기관이나 그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점과 '96.5. 정부도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유치원교사에 대해서도 담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교육감은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동 청원의 수용을 적극 검토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p> <p>2. 제안이유</p> <p>유아교육에 대한 오랜 전통과 명맥을 유지해 온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하여 공립유치원 교사의 경우와 같이 담임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청원이 당 위원회에 제출된바, 청취하는</p>	<p>○ 出席議員 138人</p> <table border="0"> <tr> <td>慶奎福</td> <td>高光哲</td> <td>高溶振</td> </tr> <tr> <td>郭順英</td> <td>具哲會</td> <td>金廣洵</td> </tr> <tr> <td>金洛淳</td> <td>金明坤</td> <td>金明炫</td> </tr> <tr> <td>金芳任</td> <td>金相男</td> <td>金成洙</td> </tr> <tr> <td>金成春</td> <td>金聖浩</td> <td>金勝建</td> </tr> <tr> <td>金勝子</td> <td>金寧剛</td> <td>金永俊</td> </tr> <tr> <td>金永春</td> <td>金永姬</td> <td>金玉源</td> </tr> <tr> <td>金泄柱</td> <td>金在京</td> <td>金在仁</td> </tr> <tr> <td>金種求</td> <td>金鍾來</td> <td>金周喆</td> </tr> <tr> <td>金天柱</td> <td>金亨吉</td> <td>金洪奎</td> </tr> <tr> <td>金喜甲</td> <td>羅太均</td> <td>盧永奭</td> </tr> <tr> <td>盧載東</td> <td>魯泰塾</td> <td>文錫珍</td> </tr> <tr> <td>文龍子</td> <td>文八卦</td> <td>閔庚燁</td> </tr> <tr> <td>閔相今</td> <td>閔鍊植</td> <td>朴謙洙</td> </tr> <tr> <td>朴南植</td> <td>朴德基</td> <td>朴相根</td> </tr> <tr> <td>朴洙桓</td> <td>朴時河</td> <td>朴一男</td> </tr> <tr> <td>朴贊國</td> <td>朴贊秀</td> <td>白南善</td> </tr> <tr> <td>白聖德</td> <td>徐在浣</td> <td>成聖鏞</td> </tr> <tr> <td>宋德華</td> <td>宋仁回</td> <td>申垞植</td> </tr> <tr> <td>安秉昭</td> <td>安順德</td> <td>梁敬淑</td> </tr> <tr> <td>梁東錡</td> <td>梁會善</td> <td>魚潤慶</td> </tr> <tr> <td>呂鼎九</td> <td>禹元植</td> <td>劉大運</td> </tr> </table>	慶奎福	高光哲	高溶振	郭順英	具哲會	金廣洵	金洛淳	金明坤	金明炫	金芳任	金相男	金成洙	金成春	金聖浩	金勝建	金勝子	金寧剛	金永俊	金永春	金永姬	金玉源	金泄柱	金在京	金在仁	金種求	金鍾來	金周喆	金天柱	金亨吉	金洪奎	金喜甲	羅太均	盧永奭	盧載東	魯泰塾	文錫珍	文龍子	文八卦	閔庚燁	閔相今	閔鍊植	朴謙洙	朴南植	朴德基	朴相根	朴洙桓	朴時河	朴一男	朴贊國	朴贊秀	白南善	白聖德	徐在浣	成聖鏞	宋德華	宋仁回	申垞植	安秉昭	安順德	梁敬淑	梁東錡	梁會善	魚潤慶	呂鼎九	禹元植	劉大運
慶奎福	高光哲	高溶振																																																																	
郭順英	具哲會	金廣洵																																																																	
金洛淳	金明坤	金明炫																																																																	
金芳任	金相男	金成洙																																																																	
金成春	金聖浩	金勝建																																																																	
金勝子	金寧剛	金永俊																																																																	
金永春	金永姬	金玉源																																																																	
金泄柱	金在京	金在仁																																																																	
金種求	金鍾來	金周喆																																																																	
金天柱	金亨吉	金洪奎																																																																	
金喜甲	羅太均	盧永奭																																																																	
盧載東	魯泰塾	文錫珍																																																																	
文龍子	文八卦	閔庚燁																																																																	
閔相今	閔鍊植	朴謙洙																																																																	
朴南植	朴德基	朴相根																																																																	
朴洙桓	朴時河	朴一男																																																																	
朴贊國	朴贊秀	白南善																																																																	
白聖德	徐在浣	成聖鏞																																																																	
宋德華	宋仁回	申垞植																																																																	
安秉昭	安順德	梁敬淑																																																																	
梁東錡	梁會善	魚潤慶																																																																	
呂鼎九	禹元植	劉大運																																																																	